

수행자와 정신과 전문의들이 모여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접점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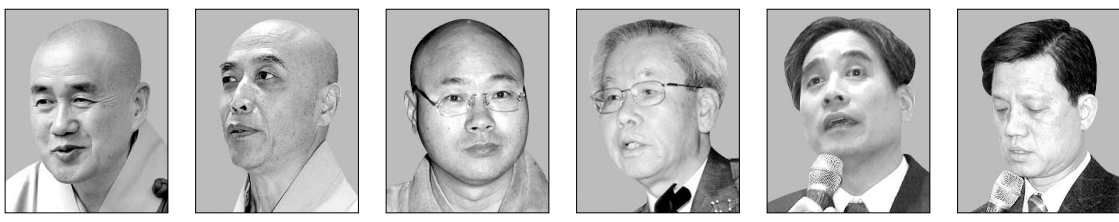
3월 26일 한국정신치료학회 주최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선수행과 정신치료' 학술연찬회에서는 중범(중앙승가대 총장) 현웅(서울 육조사 선원장) 지운(대구 용연사 주지) 등의 스님들과 이동식(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 박병탁(박병탁 신경정신과 원장) 전현수(전현수 신경정신과 원장) 등 수행과 정신치료를 병행해 온 정신과 전문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행과 정신치료의 상관성에 주목했다.

간단한 주제 발표에 이어 난상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연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연관관계에 대한 의문이었다.



한국정신치료학회는 지난해 '수도과 정신건강' '도정신치료와 서양정신치료' 포럼에 이어, 3월 26일 스님과 정신과 전문의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수행과 정신치료' 학술연찬회를 마련했다.

“선수행=정신치료” “고증돼야” 맞서



현웅 스님은 “참 선심을 만나면 분별 망상이 일시에 사라지는 등 선(禪) 자체가 정신치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선수행과 정신치료는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道)정신치료를 제창하며 ‘애증지물 기제각(偶膺之物 既除覺)·가슴에 거러끼는 돌건을 없애면 깨달음을 얻는다’를 주장해온 이동식 박사 역시 내세워 수도과정과 정신치료는 틀이 아님을 주장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박병탁 원장은 “정신치료에서의 관찰과 선수행의 관(觀)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신치료에서는 주객이 합일하는 삼매(三昧) 즉 지(止)의 과정이 없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신치료는 의식의 내용인 사고와 감정을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선수행은 의식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은 선이고 정신치료는 정신치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운 스님 역시 “대부분의 정신치료는 의식수준까지만 얘기할 뿐 그 이상은 건드리지 못한다”며 “모양은 비슷하지만 결코 같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엄밀하게

현웅 스님·이동식 박사 “궁극적으로 같다” 주장

박병탁 원장 “의식 변화, 사고·감정 통제와 달라”

고증·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범 스님은 “정신치료자는 선을 통해서 구도 동기를 순수하게 배양시킬 수도 있겠지만, 정신치료와 선이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정신치료자들은 선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참선은 그렇게 분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객석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뤄진 토론회 자리에서는 정신치료의 과정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구하는 얘기가 오고 갔다. 한 질문자는 “마음 속의 애증지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의 존재를 확고히 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문을 던졌다. 대상의 존재가 확실해야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현웅 스님은 “애증지물은 불성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며 “치료나 수행의 과정 속에서 불성에 붙어있는 그것을 관찰하다보면 애증지물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 본래 성품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지운 스님은 ‘불소시개로 불길을 일구면 불꽃이 크게 피어나지만 불소시개도 함께 탄다’는 <원각경>의 비유를 들어 “애증지물을 없애면 그것을 없애는 방법도 함께 없어진다”며 서구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찌든 정신치료와 수행자들에게 방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병탁 원장 역시 “마음을 보는 것은 누구이며 마음은 어떤 물건인가”는 선종 4조 도신(道信)의 말을 빌어 이를 지지하기도 했다.

정신치료자의 자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불교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이동식 박사는 “정신치료의 핵심은 언 땅에서 떨고 있는 환자에게 봄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치료자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淨心) 부처의 자비심으로써 환자의 문제를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범 스님은 “열반을 구하든 깨달음을 구하든 ‘구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애증지물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라며 “정신치료자가 보살의 자비심을 강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며 정신치료자의 완전한 정신(淨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 자리에는 상담 및 치료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인 300여 명이 대거 참여하면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 ‘정신치료 대상자가운데 선수행이 가능한 기준’ 등을 요구하는 질문 등이 쇄도,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글·사진=강신재 기자

아파트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관
전화주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중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nt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 수행의 길 함께 가는 형제자매

20년 전에 해인사로 얼굴이 옛것과 달리 가 제법 있는 행자가 들어왔다. 데리고 온 보호자가 비구니스님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스님은 그 행자의 누나였다. 출가생활 지경부터 은사선택, 승려노릇의 고비고비마다 조언해 주었다. 하지만 속가의 신심있는 부모마저도 ‘저 혼자도 모자라 동생까지 데리고 나갔다’는 원망 아닌 원망까지도 감수해야 했다. 이 이야기도 후일 담으로 들었다. 지금 그 스님은 복지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원력을 실천하면서 반듯하게 승려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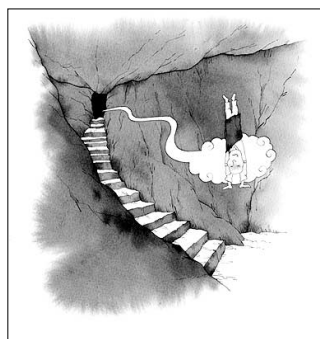
마조 선사 문하의 등은봉 선사도 누이동생이 비구니였다. 절집에서 살다보면 형제 자매 등 가족이 함께 수행 생활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언제나 대중들에게 어깃장을 놓긴 했지만 등은봉 선사가 유명한 것은 흥내낼 수 없는 열반 자세의 독특함 때문이다. 좌탈(坐脫)도 드문 일

그런데 오둔부(吳敦夫) 거사는 회담(梅堂) 노스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분의 열반이 남다른 것이야 감히 범부인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승복 또한 스님을 따라 그랬던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대가 지금 입은 옷이 몸을 따라 아래로 드리워져 있는데도 그것을 의심하는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의심할 것이 없다면 물구나무를 선 채 열반할 때 옷도 몸을 따랐을 뿐인데, 여기에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이 말에 거사는 그 자리에서 안목이 열렸다. 죽은 선사가 살아 있는 거사의 안목을 열 어주었으니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스승노릇을 한 셈이다. 그나저나 진짜 큰 일은 열반이후 발생하였다. 다비를 하려고 하니 선사의 육신이 그대로 물구나무를 선 채 꿈쩍도 않는 것이었다. 대중



물구나무 선 채 열반한 등은봉 선사 출가한 누이동생 한마디에 제자리로

인데 한 술 더 떠 오대산 금강굴에서 거꾸로 선 물구나무 자세로 열반에 들었다. 대중한테 별로 대접받을 일을 해놓은 것이 없었던 까닭에 모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별스럽다고 혀를 끌끌 찼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더러 쓸데없는 지적적인 문제로 의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등은봉 선사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섰을 때 그 동행한 동방아 승복의 오지않은 어떻게 되었을까? 땅 방향으로 흘러내려 빨래도 제하지 않은 꼬질꼬질한 속옷이 누렇게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었을까? 과각의 공통점은 빨래를 잘하지 않는 것인데... 누이가 대신 정거적으로 세탁해 주었다면 다행이고.

스님의 성품으로 봐서 누이 역시 그런 일로는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했을 것 같다. 기록에 의하면 옷 역시 서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흘러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무정물인 옷 역시 끝까지 몸을 가리는 역할을 다했다고 하니 그 불가사의함 역시 선사의 공부력의 현현이라고 봐야 할 수 있다.

들은 웅성웅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누군가가 누이 비구니에게도 움을 요청했다. 그걸 보면 그(尼)의 경지도 이미 대중들이 인정할만큼 보통 수준은 넘었던 모양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근처 토굴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그 곁에 서서 조곤조곤 한마디 하였다.

“오빠는 살아서도 과각질로 대중을 피곤하게 하더니, 죽어서도 역시 세상인정을 따르지 않는군요.”

그리고서 특 치니 그체서야 넘어졌다. 선정에 든 여인을 망명보살이 손가락을 튕겨 깨어나게 했다. ‘여인출정(女人出定)·선문염송(32칙) 공안을 연상케 한다. 그 길로 다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남매간의 그리고 또 같은 길을 가는 수행자로서 애뜻함이 있으면서도 별로 승화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등은봉 선사의 과각이력 속에서 고명양념처럼 등장한 누이의 모습이지만, 그동안 벌였던 오빠의 행적을 일거에 상쇄시켜 버린 참으로 숙연한 광경이다. ■ 원형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료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았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희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각종 통증완화' 싹뜸기개발 출시

싹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되고, 싹뜸시 화상 위험이 없으며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어 편리. ISO 9001 인증 제품 - 싹뜸기, 좌훈기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오행 싹뜸기
적용혈자리: 종안혈, 신갈혈, 관원혈, 천추혈(2)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오행 좌훈기
적용혈자리: 회음혈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 신경성과민대장염, 성기능개선, 갱년기 장애

음양 싹뜸기(무릎관절용)
적용혈자리: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심리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제품 구입시 싹 한달분 무료 증정

대리점 · 싹뜸방 모집중

모사포유 www.moxa4u.com 체인점 및 대리점 문의 : (02)521-6353~4
D.M.I.선한, 대구인연대 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제품구입문의 : (02)598-9834